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업무 계획' 집값 안정 등 7대 민생 경제 과제 추진

건설교통부가 5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7개로 나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올해 기대되는 건교부의 7대 계획을 들어보자.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업무 보고를 통해 “주택 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집값은 ‘1·11 대책’ 이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집값 안정 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문제다. 올해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정책 의지를 다지며 “집값이 안정되면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택지 공급 절차 단축, 청약 가점제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임대 주택 11만 호 건설, 맞춤형 임대 주택 확대 공급, 비축용 장기 임대 주택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집값 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먼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금년 7월 착공해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지고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한다.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 기관이 이전해갈 혁신 도시는 금년 9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도시는 금년 9월 태안부터 착공해 균형 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균형 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투기 방지, 보상 자금의 유동성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다.

한편,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고속철도 및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며, 항공 자유화 확대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외에 주요 업무 계획으로 ‘7대 민생 경제 핵심 과제’를 제시, ▲선진 주거 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국토 실현 ▲동북아 교통·물류 강국 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건설 산업의 선진화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